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72

2016.12.18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
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
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
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
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 15:11,13)

오늘의 주요기사

- 2 통일선교 1년을 돌아보며
- 3 성경바로읽기
- 4 하늘꿈학교 인터뷰
- 5 임기를 마치며
- 6 바자회수익금 사용내역보고
- 7 목회칼럼
- 8 아가나들이, 청빙공고

교회 일정

12/21(수)	성탄절 기념음악회
12/25(주일)	성탄절, 유아세례,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예배
12/31(토)	송구영신예배
1/1(주일)	신년주일
1/2(월)~7(토)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8(주일)	성찬주일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줄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
주님의교회



지금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

주일 단상에는 보랏색 초에 매주 불빛이 더해지고 있다. 성탄절 전 40일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다. 이 절기는 4세기 무렵 갈리아와 스페인 지방에서부터 지내왔다. 4주간의 사순절을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듯이 4주간에 걸친 대림절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다. 성탄절에서 거슬러 돌아가 네 번째 주일에 첫 대림절을 시작으로 매주 초에 불을 더하며 어둠을 뚫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400년의 오랜 식민시대를 거치며 고통스런 삶을 살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소망이 있다. 우리를 억누르는 관습, 가난, 사회부조리 등의 사슬에서 놓이기를 원하는 갈망이다. 독재의 어둠 속에 있는 북한 땅의 동포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세계 곳

곳으로 흩어진 난민들, 생명의 위협에서 자유와 소망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이를 때까지 그런 소망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런 자유를 먼저 맛 본 우리는 감사하고 참회하며 기쁨으로 기다리자. 사회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잠잠히 기다리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은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함줄함울

통일선교 1년을 돌아보며

2016년 통일선교가 ‘함께’ 걸어온 길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출 5:3) 한 해 동안 통일선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먼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강명도 교수, 주선에 교수, 손인웅 목사, 조수 아선교사를 초청하여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5월에 제3회 <통일선교 학교> ‘하나님의 나라-통일을 살라!’를 개최하여 허문영 박사, 서훈 교수, 신명철 대표, 오테레사 선교사로부터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약 백여 명의 성도님들이 와서 통일선교에 대해 보다 깊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12일을 <통일선교주일>로 지정하여 온 교회가 헌신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날 남북 청년들이 끊어진 다리를 잇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각

자의 통일소망을 적는 참여마당으로 온 교회에 통일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이어서 <분단현장 국내비전트립>을 다녀왔는데 강원도 양구 두타연과 편지불 전망대, 제4땅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과거 참혹한 피 흘림의 땅에 이제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하나님의 나라-통일 장마당’ <통일선교 바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섬김과 참여로 귀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통일선교위원회에서는 대외적으로 단동에 있는 협력선교사님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원부는 수년째 지속적으로 <하나원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매월 1회

안성과 화천을 번갈아 방문하여 하나원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 남북 청년들이 함께 하는 <너나들이 모임>에서는 매주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통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통일을 여는 기도회>를 시작하였는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 더욱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북향민 교회인 <길동무교회>, 청소년대안학교인 <우리들학교>와 결연을 맺고 물질적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 한해 동안 주님의교회는 해

외체류 탈북동포의 구출을 총 9명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만난 자매들도 있고, 아직 태국 난민보호소에 있거나, 혹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라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북한선교연구소와 관련하여 북향민을 위한 <살롬 제자훈련 교재>가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주님의교회 온 성도님들이 통일선교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7년에도 주님의교회가 이 땅 위에 참 평화를 심고 통일을 이루는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로 더욱 드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에도 “함께!” **허준 목사**

영어예배

추수감사절예배 - Thanksgiving Day

11월 20일 주일에 영어예배팀은 추수감사절 특별예배로 드렸다(미국 추수감사절은 11월 4째주 목요일, 24일). 특별예배 설교인도는 본 교회 초청으로 장신대학원에서 수학하고 고국인 케냐로 돌아가는 Monny Weru 목사가 Judges 6:11~16의 말씀으로 제 목 ‘Will the morning find you?’을 설교하였다. 예배 후에는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특별 주문한 칠면조, 크랜베

리 소스와 과일 등을 나누며 교제를 가졌다. 영어예배는 John Schneider 목사의 인도로 매주 60~70명이 영어로 예배드리며, EM 분과 영어예배팀, 어린이 영어예배팀, 한국어교실팀원들이 추수감사절 특별교제에 함께했다. 10월 30일에는 예배를 후에 아차산 하이킹을 함께 하며 공동체의 친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예배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96

冠牌(관 패)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 전면에 있게 하라(출애굽기 28장 36-37장)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冠(관. crown)은 관복이나 예복을 입을 때 머리위에 쓰는 모자처럼 생긴 물건이다.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비유적으로 쓰여 존귀와 영

광, 의로움, 생명, 성도의 사랑, 노인의 흰 머리 등을 의미한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대제사장의 관은 청색실로 짠 일종의 터번(turban)모양으로 그 관의 전면에 금패를 붙였는데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때 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아래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가 있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冠(갓 관. 으뜸 관) : 뚜껑이나 덮는다는 뜻을 지닌 冫(덮을 맥. 민갓

머리)와 우두머리, 근본, 크다는 뜻이 있는 元(으뜸 원)과 법도, 손, 마디를 상징하는 寸(마디 촌. 치 촌)을 결합시켜 【덮어쓰는 도구로써 신분의 근본을 구별하는데 법도가 되는 것이 갓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牌(패 패. 신주 패) : 작은 판자 또는 쪽을 뜻하는 片(조각 편)과 낮고 천하다는 뜻을 지닌 卑(낮을 비)를 결합시켜【작은 판자조각에 글을 새겨 눈높이에 맞도록 낮게 매단 것이 명패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38



대림절을 맞아 아스라히 기억되는 잔상들을 정리도 하고 때론 구겨 버리기도 하면서, 2016년을 보내며 교회 곳곳을 청소하는 섬김의 손(12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 후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청소 중)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성경 바로 읽기 | 셸리 맥페이그의 <은유신학>을 통해서 ⑤

‘친구 하나님’의 은유,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글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글에서 은유란 무엇이며 성경의 뿌리-은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세 번째 글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네 번째 글에서는 가시면류관의 예를 들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이본을 낳았는지, 따라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었을 때 어떤 오해와 오독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셸리 맥페이그는 그의 <은유신학>을 통해, 오랫동안 전통적인 방법으로 읽고 해석해왔던 성경읽기는 대개 인간과 지구를 재난에서 구원하는 전능하고 가부장적인 하나님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태복음 7:7)라는 말씀을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데에 적용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셸리 맥페이그는 미국 종교학회의 회장이었던 고든 카우프만의 연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는 군국주의와 도피주의를 낳으며,

인간의 책임성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셸리 맥페이그는 중세시대의 신학이 그 당시의 정치 체제를 닮았고, 근대 계몽주의의 신학이 개신교라는 각성의 결과물을 보여주었다면, 현대의 신학은 또 다시 새로운 모습과 상징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별, 인종, 계급에 의해 억압당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존중, 그리고 모든 방식에서 모든 생명들이 서로 상호의존하고 있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그동안 ‘아버지’, ‘왕’, ‘주인’으로 일컬어왔던 기존의 가부장적 하나님의 비유를 내려놓고, 보다 더 본질적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위치로 그분을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부장적 상상력의 위에 올려놓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성경 속의 은유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과 상상으로 찾아내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유신학>에 대한 평론을 쓴 마크 테일러는 <은유신학>이 주는 가치를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그동안의 가부장적 기본은유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은유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논의를 제공한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셸리 맥페이그는 가부장적 하나님에 대한 대안으로 ‘친구 하나님’의 은유를 제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주는 성별의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사야서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통틀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른 데에서(사 41:8), 자기의 목숨을 친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15:13),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른 데서(마 11:19) 이 은유가 본질적으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친구 하나님’의 은유는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친구는 부모가 주는 ‘혈연’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 도움, 책임을 짐, 나눔,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음, 이타적인 사랑 등 성숙한 신앙을 가능하게 합니다. 친구는 성별과 연

령과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는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도, 이방인도, 문화가 다른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행인도, 병자와 빈자도 서로 친구가 되는 세상은 진정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버린 예수님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하셨습니다. 물론 ‘친구 하나님’은 셸리 맥페이그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과정에서 사유의 실험을 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또한 ‘친구 하나님’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일지를, 그이처럼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유, 즉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셸리 맥페이그의 <은유신학>을 통해 성경 바로 읽기에 대해 생각해 본 이 시리즈는 이번호로 마칩니다. 내년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교회 소식

기독교박람회 참가

‘대한민국기독교박람회’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일산 킨텍스 2전시장에서 ‘2016 미래 빛과 소금이 되는 우수모범교회 선정’ 등 초교파적인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람회는 교회공동체관, 문화예술관, 다음세대문화관, 기독교단체관, 세계선교관, 기독교산업관, 상설행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관별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공동체의 활동과 목회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박람회 내용으로는 우리 ‘주님의 교회’(박원호 목사)의 교육 목회와 제자 훈련이 소개되었고 그외에 ‘치유하는 교회’(김의식 목사)의 치유와 상담 목회 등과 기아대책, 꿈나무재단학교, (사)나눔과기쁨, 노아선교단, (사)한국어린이전도협회 등과 도자기성서전문가정



문철 목사,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전문봉사기관인 사랑손힐링센터 등과 광진 교회(민경설 목사)의 전도와 성장 목회 등 다양한 목회 성장 및 치유 모델이 소개되었습니다. 박람회의 목적은 1)한국교회의 위상을 알리고 미래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 2)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친

해질 수 있도록 IT를 결합하며 기독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한다. 3)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게 한다 등이었습니다. 2박3일간 박람회를 통해서 배우며 나눴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함줄함울

사역팀 소식

남선교회 연합모임

11월 27일 중예배실에서는 남선교회 연합모임 및 기도회가 열렸다. 차병원 소화기내과 전재윤 박사가 건강강좌를, 임동진 목사가 남선교회의 역할에 관한 특강을 하였다. 청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안 장로와의 간담회를 통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함을 다짐하였다. 연합모임에는 약 12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내년에도 많은 모임과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휴면상태였던 우리 교회 남선교회는 올해 재건되어, 기도회를 비롯하여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권사회와 안수집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함줄함울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송년 특집 : 하늘꿈학교 탐방

통일의 꿈, 미래의 일꾼을 키우는 학교

올해 주님의교회의 표어는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였다. 이 표어에는 북한의 평화를 기원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그날을 그리는 소중한 염원이 담겨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북한이탈청소년을 보듬고 섬겨서 통일의 그날 큰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키우는 하늘꿈학교를 찾아, 두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었다.

하늘꿈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을 위해 세워진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하늘꿈학교는 2003년에 세워졌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목사이신데 북한 선교를 하면서 하나원에서 북한이탈 주민에게 한국의 사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성인들을 체제가 전혀 다른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상대적으로 아직 어리거나 젊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교사 6명, 학생 6명으로 천안에서 시작을 했다가 가락동으로 옮겼다가, 성남시의 신축건물로 입주했습니다. 초기에는 홀로 탈북한 학생들이 많아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했습니다. 교사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었지요.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통일된 후에는 고향에 가서 미용사든 요리사든 고향을 회복하고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가를 받은 정식 교육기관입니다.

낮선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지요?

보통 북한이탈주민들은 본인이 말하는 학력을 교육청과 통일부에서 확인하고 학력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래도 실제 학력 수준은 한국의 학생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북한은 결석이 많아도 졸업장을 줍니다. 워낙 동원하는 날이 많아서 맞출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남북한 언어의 차이 때문에 적응이 어렵습니다. 그

래서 나이가 참 중요합니다. 어릴수록 적응을 잘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적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학생수가 많지는 않으나, 한 학급 안에서도 수준차가 커서, 1대1로 개인지도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학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신성분에 따라 진학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꿈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모두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실력이 좀 부족한데도 대학에 꼭 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탈북청소년은 수시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기 때문에 학력 자체가 입시에 장벽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학 후에 적응이 어렵다는 것이 항상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자격증을 확보하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공을 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정치외교학과나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적응이 어렵고 실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말리는 편입니다. 남학생들의 경우 경찰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된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아마 학력의 격차로 시험에서 대부분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은 좀 더 취업이 용이한 정비사, 조리사 쪽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고, 중국어를 좀 하는 친구들은 중국어학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늘꿈학교 고유의 교육과정은 따로 있나요?

성장과정에서 한국과 다른 체제의 사회에 살았고, 또 탈북과정에서도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약간 자기중심적인 면을 보입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북한 사회에 살다보니 다른 사람을 믿는 정서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척과 가족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

한 감사와 배려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요.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다른 사람의 사랑과 지원에 대해 감사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넣고 있지요.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교사 19명이 학생 6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로, 모두 교원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지요. 일종의 대안학교이다 보니, 일반공립학교와는 처우에 차이가 많아서 엔지오 수준이지만, 모두 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8분은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기숙사에서 살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서너 명과 함께 생활하지요.

가족도 없이 낮선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어서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고향가기를 그리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한 친구는 아직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냄새가 그립다고도 하더라고요. 탈북한 지 한 일년 정도까지는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과 그리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난 14년 동안 4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하늘꿈학교에 왔는데, 졸업한 학생들은 15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정서적인 혼란과 갈등으로 중도탈락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아직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학생들에게 주는 상처도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희도 참 안쓰럽고 힘듭니다. 그저 학생들을 위한 기도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교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학비를 안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숙사도 제공하고 교재와 하루 세끼 급식도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후원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합니다. 후원하신 곳에서 예쁜 건물을 세워주셔서 정말 고맙지요. 다만, 규모가 커지다 보니 학교시설을 유지



성남에 위치한 하늘꿈학교 전경

하는 관리비와 다른 재정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비용의 60%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40%는 통일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통일부의 지원은 자체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의 규모에 연동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통일부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과 기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속적인 후원과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전적 후원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1대1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학과목의 지원, 또는 피아노 같은 예체능을 가르쳐주시면 좋지요. 식당에는 주방봉사도 필요합니다. 급식준비와 배식, 정리를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근 교회에서도 팀을 짜서 오시곤 합니다.

멘토링과 급식 등에서 약 50분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큰 후원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작은 후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신학원, 주님의교회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와는 오랜 교류가 있었습니다. 정신여고의 미술 교실에 저희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학생들간의 교류를 통해 남북 음식경연대회나 토론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오래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바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어예배를 담당하는 슈나이더 목사님과 사모님이 매주 오셔서 영어성경공부를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는 교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후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단되었습니다. (웃음)그래도 몇몇 교인께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계속 해주십니다.

> 5면에 계속

임기를 마치며

하나님의 선물 - 주님의교회 6년간의 사역을 감사하며

주님의교회에 부임하여 은혜를 받았던 일 중 하나는 매월 첫째 주일마다 진행되는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날드 롤하이저의 저서 「아무도 말하지 않은 성찬의 영성」에서 성찬의 네 가지 순간을 받아들임, 감사, 깨어짐, 나눔으로 통찰한 틀을 통해 지난 6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 받아들이기

성찬의 첫 번째 순간은 주님의 몸과 보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인원으로 떡을 스스로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 떡과 잔은 집례자가 직접 분배하고, 회중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보혈은 우리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선물이기기 때문입니다.(엡2:8)

지난 6년간은 저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특히 청년부 사역과 1년간의 권사회 사역은 제가 계획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전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요 3:27) 말씀의 의지하며 제게 허락하신 사역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곤 하였습니다.

(2) 감사하기

혹자는 제가 청년부를 감당한 것을

어떤 희생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 저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의 학업, 유학, 군입대, 취업, 연애, 결혼, 부모님장례 등 인생 여정을 동행하며, '아, 목회란 이렇게 성도의 삶을 신앙으로 인도하며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로구나!' 실감했습니다. 청년기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고뇌에 찬 시기입니다. 그런 청년인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처음인 초신자들도 리더가 되기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고, 교회를 떠돌며 방황하던 청년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가정의 깨진 청년들은 공동체에서 서로의 누나, 형, 동생이 되어주며 성숙해갔습니다. 은혜를 받은 청년들은 매년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등 그들의 영적 성장을 바라보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찬에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선물로 받아든 성도는 감사한 맘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6년동안 청년들과 저는 주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감사로 가득차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3) 부수기(깨어짐)

청년사역을 12년간 해왔지만, 그 변화의 흐름은 매년 예측하기 어려웠

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에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 불리기 시작했고, 알바는 필수가 되었으며,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같습니다. 시대가 붙여준 청년들의 이름은 '6포세대'이며, 예배와 섬김과 헌신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급변하는 그들의 성향에 따라 저는 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움켜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저의 작은 품은 깨어져 넓혀져야 했고, 때때로 거절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의 생각과 말은 청년들에게 항상 '옳은 것'일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거절하면 거절당하며 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절당함'을 통해 청년들은 굴종이 아닌 참된 순종을 배우게 되었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의 동기를 키워나가며 청년들 역시 깨어졌다는데 있습니다.

성찬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손을 펴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합니다. 빵은 나누어지기 위해 깨져야 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지난 6년간의 사역은 저와 청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깨어진 시간이었고, 동시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4) 나누기

6년간의 청년부 비전은 '나를, 서로를, 교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약칭-'아하! 그제자'-엡4:13).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행1:8) 청년부 공동체에서 복음으로 아름답게 된 한 청년은, 자신을 부수어 나누기 시작했고, 청년부 전체 인원 1/3이 제3국 아동들 입양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며, 매월 마천동 아동센터와 하나원 방문, 그리고 매년 국내선교와 해외선교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아름다워진 한 청년이 누군가를 섬겨 그를 아름답게 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아름답게 했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눔의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벚꽃은 1년 365일중 단 15일 동안만 꽃을 피우지만 그 시간으로 인해 평생을 벚꽃 나무라고 불립니다. 저와 주님의 청년들은 지난 6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평생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며,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깨어지고, 나누어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과거,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을 주님의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정재상 목사

> 4면에서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의를 해서 오케스트라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북한에서 음악교육을 안 받고 와서 악보를 볼 줄도 모르다가 지금은 그래도 연주를 좀 합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데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은 15명 정도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주시면 가서 기꺼이 학교 소개와 연주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교류의 폭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꿈학교에는 졸업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하늘꿈

학교가 모교이고, 고향이며, 친정이고, 한국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곳이기 때문이지요. 이곳에서 믿음생활을 처음 맛보고 낯설어하다가 끝내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하늘꿈학교에 다닐 때에는 천방지축이었다가 대학에서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께서도 이 좋은 일을 함께 거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늘꿈학교 후원팀은 02-443-2072,

heavenlyedu@hdschool.org입니다.

홈페이지는 www.hdschool.org입니다.

예수친구사역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여정

처음에 예친사를 들었을 때에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나 싶어 남의 일로 여겼었다. 그러나 같이 하기를 권하는 분들과 시작한 1단계에서는 정말 따뜻하고 허물없이 삶을 공유한 일 년이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며 진정한 용서에 대해 나눔었던 김정형 목사님과 함께한 2단계는 정말 강렬했다. 예친사가 아니었다면 누가, 그것도 매주 두 시간 가까이 목사님을 독차지하고 목사님의 지식을 다 빨아들일 듯이 질문 공세를 퍼며 우리

의 궁금증을 풀어내는 시간을 누릴 수 있었을까! 3단계에서는 조금 성숙하고 차분하게 서로가 인도자가 되어 신앙여정과 삶을 나누며 수료하기에 이르렀다. 수준에 벽찬 필독서를 읽느라 끔찍대던 기억, 읽은 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시간, 밥퍼 봉사과 죽 배달을 한 일 등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수료식 때 담임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과정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3년의 나눔에 응답하고 싶다.

김숙연 집사

섬김과 나눔

사랑의 목도리 전달식



12월 6일 김마리아 회관 로비에서 사랑의 목도리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2016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 된 사랑의 목도리 뜨기는 국내외 신생아, 결식아동, 북한 어린이, 독거 어르신, 암 환자 등 불우이웃을 돕는 '섬김과 나눔'의 실천이다. 목도리들은 정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기술과 가정 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만든 것이다. 1학년 신주용 학생은 “목도리를 만들 때에는 힘도 들었지만 막상 이 목도리가 겨울에 따스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쓰인다고 하니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뜨개질을 하며 한땀한땀이 이어져 만들어져

서 사랑을 나눌 여러 곳에 전달될 목도리들을 통해 정신여고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외의 학생들도 “이전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이번 사랑의 목도리 뜨기를 통해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다. 처음 배워본 뜨개질로 긴 목도리를 뜨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기도 했지만 끝까지 뜬 목도리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나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사랑의 목도리 전달식은 박원호 목사님의 기도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역팀 소식

교회대청소



안수집사회는 12월 3일(토) 새벽 예배 후에 권사회와 함께 성탄맞이 교회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지난 3월 부활절 봄맞이 대청소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하는 청소다. 김정형 목사를 비롯하여 60여명의 안수집사, 권사들이 참여하였다. 본당 2,3층의 무거운 장의자를 움직이며 바닥을 쓸고 닦는 동안 권사회에서는 1층 소예배실의 불박이의자와 테이블 청소

를 담당하였다. 교회청소를 마친 후에는 연말을 맞아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교회내 장애우와 기관실과 미화집사들께 쌀 50포(10kg)를 전달하였고 하남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쌀 50포(10kg)를 전달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12월 11일(주일)에는 2016년 안수집사회 정기총회를 가졌고 2017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함줄함줄

사역팀 소식

사랑나무 에이레네 음악회



포근한 날에 포근한 맘을 가진 분들과 함께한 행복한 음악회. 12월의 11일 오후 1층 소예배실에서 사랑나무 주최로 사랑나무 에이레네 음악회가 열렸다. 에이레네는 헬라어로 ‘평화’, ‘평안’이라고 한다. 12월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달이다. 행복이 있는 자리, 그리움이 있는 자리, 기다림이, 머무름이 있는 자리로의 초대를 받았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쉬움과 지난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우리 주위에 자연환경도 나뭇잎 다 떨구어내고 온전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나목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무언의 암시를 보내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사랑나무는 발달장애가 무엇인지를 지적장애가 무엇인지. 자폐아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교회에 사랑나무가 생긴다는 은혜로움에 다른 교회의 사랑나무 예배에 참가하며 준비를 했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8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을 돌아보니, 가슴을 열고 내일의 환한 빛이 있는 사랑의 길로 걷고 있다. 사랑나무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진 편견의 시선 속에서 묵묵히 사랑만을 나누는 선생님들과 사랑나무 아이들의 부모님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20살이 훌쩍 넘어갔다. 한결같은 봉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8년 동안 자란 사랑나무 음악회에 참여한 여러 팀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교회 사랑나무 넉넉한 숲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 깊은 기도를 드린다.

신형섭 안수집사

통일선교

2016 통일선교바자회 수익금 사용 내역 보고

- 1.바자회 총수익금 : 25,321,000원 (판매수익 13,836,000원, 헌금 11,485,000원)
- 2.바자회 수익금 배분 내역

지 원 처	세부 내용	지원금액	비고
해외탈북민 국내입국	해외탈북민 구출경비 (250만원 X 4명)	1000만원	통일소망 선교회
결핵제로운동본부	결핵제로운동 기금	500만원	결핵제로 운동본부
우리들 학교	1달 건물 임대료 (200만원 X 1층)	200만원	윤동주 교장
하늘꿈 학교	학교운영 재정지원	200만원	임향자 교장
길동무 교회	탈북민교회 동포사역활동 지원	100만원	정순희 목사
수원 새사람교회	탈북민정착지원사업 여주 양계장 지원	200만원	이동인 목사
탈북민 보호센터	성탄선물 : 약 400명 양말 3컬레 세트	212만원	집행 예정
통일선교 도서 구입	〈개성공단에서 십일 년〉 (12,000원 X 100권)	120만원	김주윤 선교사
총 계		2,532만원	

3. 수익금 배분의 원칙

- 1) 해외탈북동포 국내입국 지원 우선
- 2) 국내탈북민 협력단체 지원(실제 교류협력하고 있는 대상)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와 참여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칼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

1.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베스트셀러였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루게릭병으로 죽음을 앞둔 노 교수 모리와 그의 제자와의 대화를 담은 책입니다. 모리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느라 바빠 뛰 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느라 분주할 때조차도 그 절반은 자고 있는 것과 같지. 엉뚱한 것을 좇고 있기 때문이야. 인생을 의미 있게 보 내려면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봉사하고 자신에게 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을 창조하는

것에 헌신해야 하네.”

모리 교수는 온몸이 굳어져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인생에 대한 의미를 놓지 않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삶을 살면서 느끼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남기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제자 미치는 죽음을 앞둔 모리 교수의 평온하고도 침착한 모습에 자신이 지금껏 중요시한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던 자신의 치열한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2.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두 배가

잡힐 만큼의 큰 물고기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구원할 때 큰 계획이, 큰 구원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사람을 취하라”입니다. 이것이 모든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것으로

너무 안심하여 그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 배나 그물, 내가 어제 잡았던 고기가 내 인생을 보장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구니 안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 나를 통해 영원의 가치를 알았다는 사람, 나를 통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사람,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 후회 없는 인생 살았노라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 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대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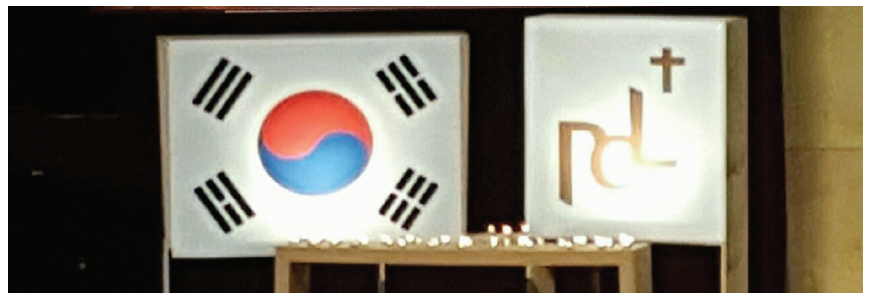
전교인기도회

나라를 위한 전교인기도회

나라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12월 2일, 9일과 16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주간 대예배실에서 열리고 있다. 어수선한 국정사태 속에서 나라가 처한 현실에 애통하는 마음과 빛을 잃은 나라에 빛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

실한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주님의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 속에서 은혜로운 대림절을 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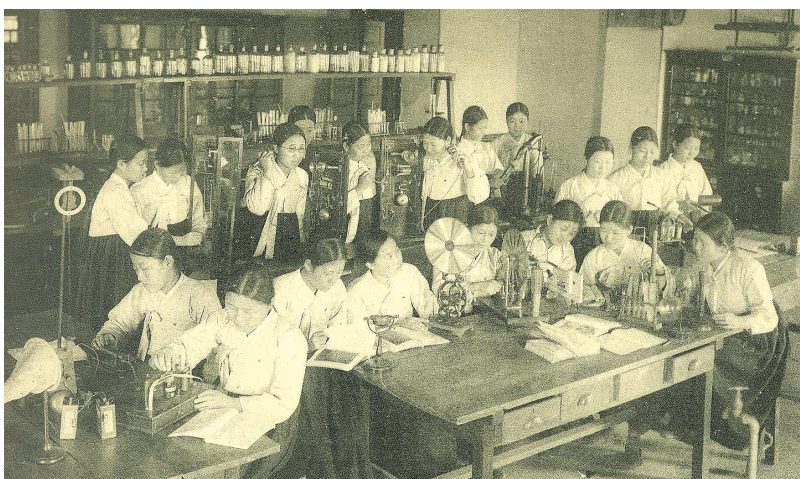
함줄함울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38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7)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 차이



1936년 정신여학교 이화학실험

1935년 11월 14일, 평안남도 도지사는 중등학교 교장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신사참배를 명령하였다. 이전

에 없던 명령이었다. 이에 대해 평양 지역 기독교계 학교 교장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

1936년 1월 18일에 송실학교 교장 매쿰(George S. McCune)이 파면을 당하고, 1월 20일에는 송의여학교 교장 대리스누크(Velma L. Snook) 여사가 파면되었다.

천주교는 1936년 5월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고 하였고, 감리교도 1936년 6월 일제의 입장을 따르기로 했다. 캐나다 장로회도 이를 따랐다.

반면에 미 남장로회선교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936년 11월 교육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의하고 1937년 9월부터 광주·의송·수피아, 목포의 영흥·정명, 순천의 매산, 전주의 신흥·기전, 군산의 영명학교 등이 폐교하였다. 호주 장로회선교부는

1939년 9월 교육철수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미 북장로회선교부는 선교사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 선교부 실행위원회를 주도했던 평양의 홀드크로프트와 솔타우, 로즈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강경파였다. 반면에 서울지부 정신여학교 설립자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등은 다른 입장이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학교가 폐쇄가 되면 세속적 학교들만 남을 것이며 조선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아버리는 길이니 양심이 용서하는 한 신사참배의 명령을 따르자고 호소했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아기나들이



유재은 아기

2016년 5월 25일생

1.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소서
2. 예수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두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빠 유한석 / 엄마 이은혜, 2016년 11월 20일 3부 예배



이연우 아기

2016년 8월 29일생

1. 하나님의 축복아래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2.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기를
3.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아빠 이동호 / 엄마 강유리, 2016년 11월 20일 3부 예배



이주은 아기

2016년 7월 29일생

1. 주님께서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2. 하는 일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3.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빠 이성훈 / 엄마 홍주희, 2016년 11월 27일 3부 예배



황윤하 아기

2016년 8월 8일생

1.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2. 고난 받을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겨내고, 사랑이 충만한 자녀 되게 하소서
3. 일평생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굳은 믿음을 가진 자녀 되게 하소서

아빠 황인보 / 엄마 박미영, 2016년 11월 27일 3부 예배



이주안 아기

2016년 5월 16일생

1. 주님 안에서 축복 받으며 건강히 자라게 하주세요
2.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주안이가 되게 하주세요
3.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주세요

아빠 이대한 / 엄마 주혜리, 2016년 12월 11일 2부 예배



김호진 아기

2016년 7월 6일생

1.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주세요
2. 지혜와 총명함을 주세요
3.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호진이가 되게 하주세요

아빠 김진성 / 엄마 정미리, 2016년 12월 11일 3부 예배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청빙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양 남노회에 소속된 주님의교회로서 담임목사가 2017년 6월말로 10년 임기를 마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1.지원자격

- 1)연령: 만 60세 이하
- 2)학력: 본 교단 신학대학 또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 후 본교단 신학대학원 졸업자
- 3)경력: 본 교단 목사안수 후 10년 이상 목회 유 경험자
- 4)국적과 언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한국어

2.제출서류(각 1부)

- 1)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1매)
- 2)자기소개서: 가족소개, 성장과정, 신앙관, 목회간증 등(A4 5매 이내)
- 3)목회계획서: 목회 동기, 목회 철학, 비전, 교회운영 등(A4 5매 이내)
- 4)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현재 시무교회 요람 및 최근 주보 1개월분(해당자에 한함)
- 6)사모 자기소개서

* 2차 제출서류(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7)졸업 및 학위증명서
- 8)노회소속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 9)최근 설교 동영상 2편(CD 또는 USB)
- 10)건강진단서(본인 및 사모)

3.제출기한: 2017년 1월말까지

4.제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16 정신여고내 주님의교회 사무국(청빙위원회) ☎ (02) 416-5181

5.참고사항

1. 담임목사 청빙은 공모와 추천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2. 모든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우편물에 "청빙서류 첨부"표기요망)
3.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 기재요망)
4. 1차 서류심사 결과는 개별통지하며, 개별상담은 사양합니다.

* 후보자 추천방식

1.추천을 할 수 있는 자격

- 당회원(언권회원 포함): 3명 이상
- 중직 직분자(시무, 은퇴 안수집사, 시무, 은퇴 권사, 협동장로): 5명 이상
- 추천 대상자: 청빙 공고의 자격기준과 동일
- 추천 구비서류: 추천서(소정 서식)

2.접수처: 사무국(청빙위원회)

3.추천기한: 청빙일정 기간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한국의 100년 교회 사진전

주님의교회 사진팀에서는 한국의 100년된 초대교회를 찾아서 2년동안 촬영한 사진을 모아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12/18(주일) ~ 12/25(주일)(2주간)

장소: 교회 로비 앞 현관(1층)

전시 작품은 무료 대여합니다.

문의: 서정하 안수집사(010.9554.9715)

